

# 간첩이 민주화? ... '설강화', 역사왜곡 논란 속 첫방

### JTBC 토일드라마 ... 1980년대 시대극 네이버 대화방·홈피 비공개 처리 '눈살' 한국형 판타지 tvN '불가살' 첫 출발

방송 전부터 역사 왜곡 우려가 일었던 JTBC 새 토일드라마 '설강화'가 공개됐다.

배우 정해인과 블랙핑크 지수가 주연을 맡은 '설강화'는 독재 정권 시절인 1987년을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다.

18일 밤 10시 30분 방송된 첫 회에서는 여주인공인 영로(지수 분)를 비롯해 여대생들이 모여있는 호수여대 기숙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졌다.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혜령(정신혜), 부잣집 딸로 영동한 구석이 있는 설희(최희진), 빨대안경에 금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를 읽는 정민(김미수), 여대생이 되고 싶어하는 전화교한 원분옥(김혜윤)이 다채로운 매력을 드러냈다.

대선을 앞둔 독재정권의 정치 공작과 '대동강 1호'로 불리는 간첩을 쫓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민주화 투쟁과 학생운동 등 시대 배경을 반영한 모습도 그려졌다.

드라마는 방영 전 미완성 시놉시스가 일부 공개되면서 민주화운동 편협과 안기부 미화 의혹을 받았는데, 이날 방송분에서는 독재정권의 기득권층, 안기부 요원 등 인물들이 소개되는 선에서 전개가 그쳤다.

남자 주인공 수호(정해인)는 재독고포 출신 대학원생으로 등장해 영로와 짧은 로맨스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6개월 후 북에서 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간첩 신분임이 드러났다.

안기부는 수호를 '대동강 1호'로 의심하고, 결국 털미가 잡힌 수호는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호수여대에 잠입했다. 드라마는 그런 수호를 발견한 영로의 모습으로 엔딩을 맞으며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 수호를 감싸줄 것이란 전개를 예고했다.

남과 간첩이 민주화운동을 주도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방송 전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지만 첫 회에서는 이런 점은 시사되지 않았다.



JTBC '설강화'

다만 간첩인 수호가 민주화운동 투쟁의 주축이 됐던 대학생들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설정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전개가 주목된다.

민주화운동 당시 공안당국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례가 수도룩한데, 이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간첩을 주인공으로 다루다 보면 자칫 오히려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tvN '불가살'

이런 가운데 논란을 피하려는 듯한 JTBC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JTBC는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네이버 콘텐츠 홈의 'TALK' 장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설강화'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의 글 40여건도 비공개 처리한 상태다.

JTBC는 앞서 '설강화'는 민주화운동을 다루는 드라마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연출을 맡은 조현탁 감독 역시 첫 방송 전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치적이나 이념적인 것보다는 어떤 사람 자체에 대해 굉장히 깊고 밀도 있게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한편 전날 밤 9시에 방송된 tvN 새 토일드라마 '불가살' 첫회는 저주를 받고 태어난 단환(이진욱)과 죽일 수도, 죽을 수도 없는 불가살(권나라)의 복수와 업보로 묶인 악연의 시작을 담았다.

한국형 판타지를 표방한 드라마는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 풍경 속에서 강렬한 색채를 적절히 사용하며 때로는 애뜻하고 때로는 긴장되는 분위기로 극을 이끌며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 SBS 연예대상에 '미우세' 코로나 확진 유재석은 불참



'미운 우리 새끼' (이하 '미우세') 팀 전원이 올해 SBS 연예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미우세' 팀은 18일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1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미우세'는 다 큰 철부지 아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예능으로 신동엽, 서장훈이 MC를 맡고 있으며, 이상민과 김종국, 임원희, 탁재훈 등이 출연한다.

무대에 오른 이상민은 "'미운 우리 새끼' 모두가 대상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고, 탁재훈은 "팀 단체로 상을 쥐서 감쪽 놀랐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장훈은 "5~6년째 시청해주고 계신 시청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함께 촬영하는) 어머니들 덕분에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말했다.

신동엽은 "(단체상을 받아)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제작진 입장에서는 누구 한 사람만 주기 힘들어서, 어렵게 팀으로 상을 준 것 같다"고 입을 뗐다.

이어 "지금은 함께 하지 못하는 견모형 어머니, 수홍이 어머니 모두 건강하시고, 끝까지 '미우세'를 즐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라디오 드라마 21세기 버전으로 소리로 듣는 영화 오디오 무비 '흥' 공개

오디오풀러 인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소리로 듣는 영화 '오디오 무비'가 선보인다. 텔레비전이 흔하지 않던 시절, 성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라디오 드라마가 21세기 버전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네이버 음악 플랫폼 바이브를 통해 공개되는 오디오 무비 '흥'은 중간 소음이 계속되는 무광 빌라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스릴러다. 프로파일러 김강호와 경찰 신지호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남긴 마지막 녹음 기록과 용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실을 파헤쳐 나간다.

임지환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에 음향과 음악이 강조되고, 모바일 화면에서는 컴퓨터 그래픽(CG)과 자막 등을 함께 볼 수 있다.

프로파일러 김강호는 이제훈이 연기하며 담당 형사 신지호 역에는 문재원, 경비원 역에는 강신일이 출연한다. 120분 분량의 영화는 6개 시리즈로 나눠 오는 27일 무료로 공개된다.

/연합뉴스

# 조한선, 영화 '타이거마스크'서 K-히어로 변신

### 택견 배워 대역과 반반 소화 코미디 액션... 오는 30일 개봉

마블 스튜디오의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 (사진)이 극장가를 누비는 와중에 호랑이 탈을 쓴 K-히어로가 등장했다. 조한선을 원톱 주연으로 내세운 코미디 액션 영화 '타이거마스크'에서다.



택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한선이 연기한 건평은 어릴 적 택견을 연마했지만, 지금은 일도 연애도 뭐하나 풀리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남자

다. 오랜만에 고향에 갔다가 택견 도장에 들른 그는 옛 스승이 엄청난 무공 실력으로 악당들을 해치운 타이거마스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스승은 건평에게 신비로운 힘을 지닌 타이거마스크를 물려준 뒤 죽음을 맞고, 건평은 스승의 뒤를 이어 새 타이거마스크가 된다.

그가 이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호시탐탐 도장을 노리는 한 국제 일본인 운 회장(강병)을 막는 것. 운 회장은 한반도의 혈자리에 위치한 택견 도장을 모두 인수해 나라의 기운을 빨아들일 계획을 세운 상태다. 건평은 운 회장을 물리치고 진정한 K-히어로로 거듭날 수 있을까.

영화가 보여주는 택견 액션은 신선하고 통쾌하다. 그러나 가라테로 싸우는 일본인과 택견으로 싸우는 한국인이라는 설정은 다소 단순하고 뻔하게 느껴질 수 있다. '킹스맨', '해바라기' 등 기존 영화나 가수 나훈아의 이른바 '바지 사건' 등을 패러디한 장면은 웃음을 주기보다는 작위적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오는 30일 개봉.

/연합뉴스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